[AI Economist] DOL · CLAIMS · 노동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팬데믹 후 최저 근접, 인플레 국면엔 오히려 악재

2026.07.24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기업이 한 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직원을 내보냈는지를 가장 빠르게 포착하는 지표다. 이번 주 수치는 187K(−22K)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단기 노이즈를 걸러내는 4 주 이동평균도 207.5K(−7,250)로 동반 하락했다. 기업들이 인력을 내보내는 속도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한 발 더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맥락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7 월 중순은 미국 자동차공장들이 설비 재정비를 위해 일시 가동을 중단하는 시기로, 계절조정 방식이 매년 이 구간에서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22K 가운데 일부는 이 계절 요인이 부풀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노이즈를 반영해 4 주 평균을 함께 보면 방향 자체는 유효한 개선으로 읽힌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현재 시장 환경에서 어떤 신호로 작동하느냐다. 지금은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 3.4%,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 4.70%, 서부텍사스산 원유 연간 +23.8% 속에서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지배적인 국면이다. 이 환경에서 해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두 가지 경로로 물가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임금이 유지되면 서비스 물가 하락 속도도 늦춰진다. 동시에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하게 금리를 내릴 근거도 사라진다. 결국 현 국면에서 187K 는 인플레 국면의 악재로 작동하며, 금리 동결 장기화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 판단에 조건이 붙는다. 인플레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해고가 없다'가 악재지만, 경기 급랭이 지배적인 리스크로 부상하는 시점이 온다면 같은 데이터가 '경기 방어력이 남아 있다'는 호재로 재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는 두 가지다. 다음 주 수정치가 상향되는지—상향된다면 이번 낙폭의 신뢰도는 낮아진다—와, 이번 발표에서 제공되지 않은 계속청구(실직 후 재취업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 수치다. 기업이 내보내지는 않지만 새로 뽑지도 않는 비대칭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지를 계속청구가 확인해줄 것이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7-23 (이번)	2026 년 7 월 18 일 주간	대신증권	2026 년 7 월 24 일
2026-07-16	주간 청구 208K 는 전주 대비 개선했으나, 4 주 이동평균의 낙폭이 3 주 연속 가속화(-2.25K → -3.25K → -4.5K)하면서 기업의 구조적 채용 축소 트렌드가 심화 중임을 시사한다.
2026-07-09	주간 청구 215K 의 "안정화"는 착시이며, 4 주 이동평균이 지속 하락(224→219K)하는 가운데 상승 추세의 중단과 구성적 약화가 확인되는 시점 — 동시 고용통계의 급락과 정합되는 노동시장 기저 악화 신호.
2026-07-02	신규청구 215K 로 안정화되었으나, 동시 발표 고용통계의 급락·구인/채용 괴리와 함께 읽으면 노동시장이 "수급 균형"이 아니라 "기업 채용 중단(hiring freeze)"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시사—고용 절대 수준의 견조함을 착각하기 쉬운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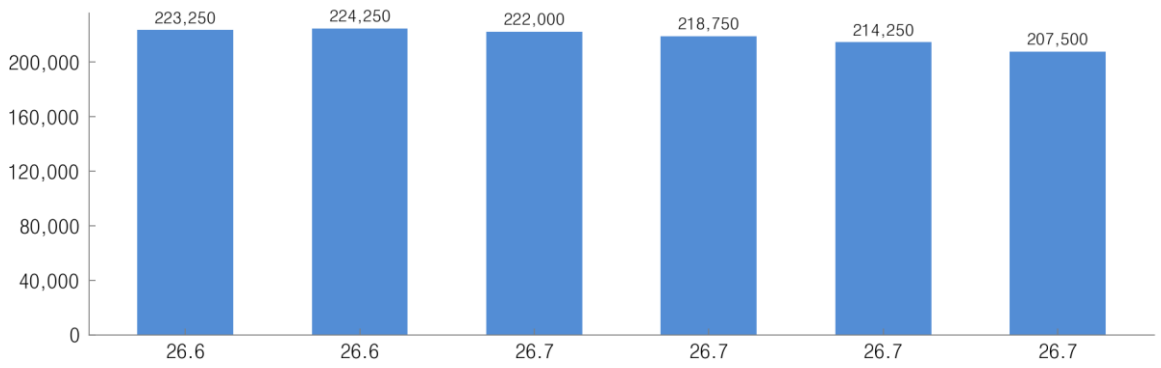
신규 실업수당 청구 현황 및 시장 평가

항목	현황	의미
신규 청구건수	187 천건 (-22 천건)	팬데믹 후 최저권, 계절조정 왜곡 포함
4 주 이동평균	207.5 천건 (-7.25 천건)	단기 노이즈 제거 후에도 개선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	3.4%	물가 상방경직, 임금 유지 시 고착
10 년물 국채금리	4.70%	금리 동절 장기화 근거 강화
서부텍사스산유	전년 +23.8%	원유 인플레 압력 지속
현 국면 신호	조건부 악재	인플레 국면에선 악재, 경기 급냉에선 호재
노동시장 구조	해고 감소 vs 채용 동절	비대칭 약세, 실직자 미재취업
다음 확인 포인트	수정치·계속청구·다음달	수치 신뢰도, 구조 악화, 추세 지속성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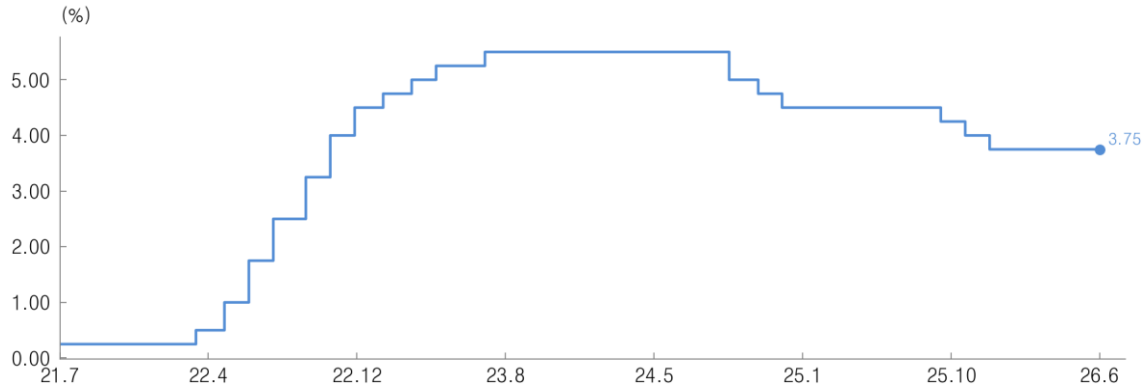
지표	값
4 주 이동평균(건)	207500
전주대비(건)	-22000
신규 실업청구(건)	187000

Initial Jobless Claims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 ma 4week 최근 발표 추이 (발표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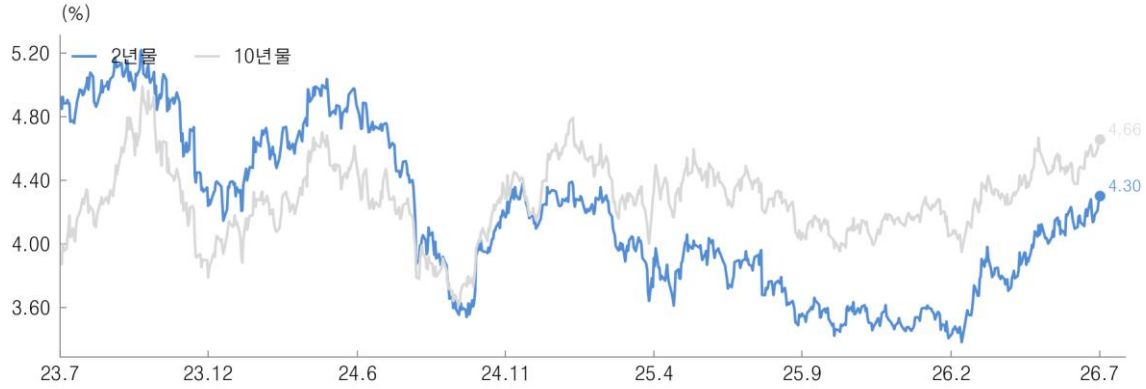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하우스 축적),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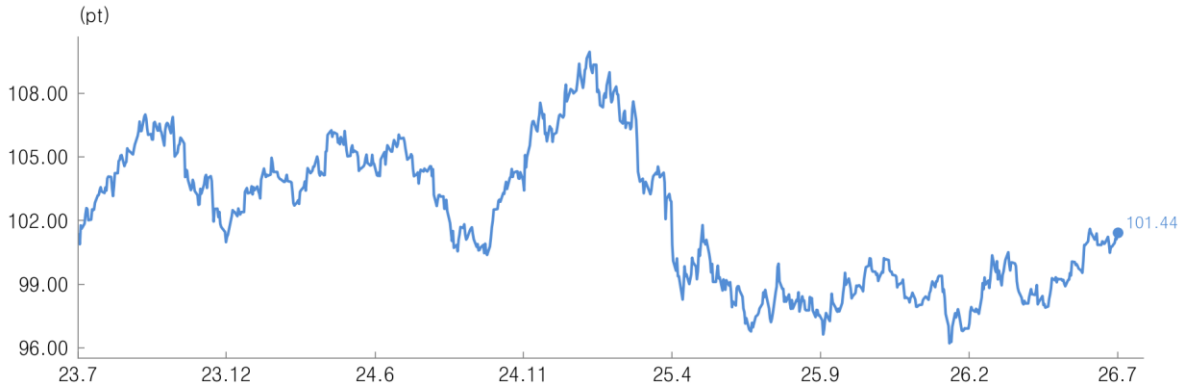
자료: CEIC(2026-06-18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